

“올해 우승 적기...타점포 욕심 내겠다”



주장서 '보통 선수' 된 KIA 이범호 시즌 각오

후배들 성장...천적 극복하고 정규시즌 2위 이상

100타점 넘기고 주장 김주찬에겐 '그림자 내조'

“그게 참 무겁더라. 우리 친구 다리도 아픈데 옆에서 잘 도와줘야지.”

지난 3년 KIA 타이거즈 내야수 이범호의 이름 앞에는 '주장'이라는 수식어가 따라다녔다. 그리고 그의 유니폼에는 주장(Captain)을 상징하는 'C'가 새겨져 있었다. 이범호는 올 시즌 드디어 무거웠던 이름을 내려놓았다. 이범호의 각별한 친구인 김주찬이 대신 '주장'의 역할을 맡아 'C'를 가슴에 달게 됐다.

이범호는 “(유니폼에 새겨진) C라는 글씨가 무겁다. 무게감이 더해지더라”며

“친구가 (종양 제거 수술을 해서) 다리도 아픈데 무거운 것을 달고 뛰게 됐다. 옆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도와주고, 내 자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보통 선수'로 돌아가는 마음을 밝혔다.

그는 중요한 시즌, 무거운 책임을 지게 된 김주찬을 위해 '그림자 내조'를 생각하고 있다.

이범호는 “이제 주찬이가 주장이니까 나는 조용히 뒤에서 도와주는 게 많다. 운동이 끝나면 빨리 자리 비켜주고, 내 운동에 집중할 생각이다”고 언급했다.

올 시즌은 비시즌 기간 준수에 따라 예년보다 보름 늦게 스프링캠프가 시작됐지만 준비 과정과 마음은 똑같다.

이범호는 “작년과 비슷한 패턴으로 올해 캠프를 준비했다. 일찍 웨이트를 시작하면서 몸을 만드는 데 주력했다”며 “캠프에서도 평소와 같이하면서 내 운동에서 부족한 것이 있으면 그 부분을 더하겠다. 주장이 아니라서 개인 운동을 하는데 여유가 있을 것 같다”고 웃었다.

지난 시즌은 부족함이 없던 한 해였다. 초반 부진으로 고전했던 2015년과 달리 꾸준한 활약을 이어가며 프로데뷔 후 첫 30 홈런은 물론 100타점도 넘었다. 0.310의 타율로 33홈런 108타점을 찍은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역대 최다 만루 홈런 기록도 15개까지 늘려놓았다. 힘 있는 '한방'을 날렸던 이범호지만 올 시즌에는 홈런보다 타점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범호는 “지난해에 정말 좋았기 때문에 눈높이가 많이 높아졌을 것 같다. 솔직히 홈런 부분은 (지난해만큼)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는데 타점은 욕심난다. 앞에 출루율 좋은 타자들이 있으니까 100타점은 무조건 넘기고 싶고, 넘겨야 한다”며 “최형우가 팀에 왔는데 최근 5년 안에 리그 최고의 타자라고 생각한다. 팀 공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어떤 모습을 배울 수 있게 될지도 기대된다”고 언급했다.

지난 시즌을 앞두고 이범호는 자신에게 '가을 잔치'를 예고했었다. 올 시즌 예상은 조심스럽다. 우승 적기지만 평준화된 전력 과 극복해야 할 '약점'이 있다는 설명이다.

이범호는 “우리 팀이 전력 보강을 했지만 다른 팀들도 보강이 있었고 독보적인 투수를 제외하고 5강 싸움이 치열할 것이다. 우승을 정말 하고 싶다. 기회가 올 때 해야 한다. 그게 올해라고 생각한다. 우승

에 도전하려면 2등은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어느해보다 험난한 순위 싸움을 예상한 이범호는 “그동안 특정팀한테 약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것을 극복해야 할 것 같다. 그게 아니면 고전할 수도 있을 것 같다. 넥센과 NC와의 싸움에서 힘을 보여준다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다. 우리도 충분히 해볼만 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시즌 많이 성장한 후배들의 모습도 이범호가 믿는 구석 중 하나다.

이범호는 “직접 느껴보는 것이 중요하다. 지난해 젊은 선수들이 와일드 카드 결정전도 하고 많이 컸다. 성장하는 게 눈에 보였다. 좋았던 느낌과 마지막에 느꼈던 아쉬움을 가지고 올 시즌에도 성장하고 좋은 활약을 해줄 것 같다”고 희망을 이야기 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또 WBC 악재

정근우 무릎 부상 제외
오재원·박민우 선발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한국 대표팀에 또 하나의 부상 악재가 발생했다. 정근우(한화)가 무릎 부상을 이유로 대표팀에서 빠진다.

KBO는 1일 “한화 구단으로부터 정근우가 무릎 부상으로 대회 참가가 불가능하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동안 정근우는 대표팀 ‘불박이 2루수’였다. 2006년 도하 아시안게임 대표 선발을 시작으로 2008년 베이징 올림픽, 2009년 WBC, 2010년 광주 아시안게임, 2013년 WBC, 2015년 프리미어 12까지 꾸준히 대표팀 2루수를 지켰다.

왼쪽 무릎 반월판 손상 진단을 받은 정근우는 지난해 10월 수술을 받았다. 이후에도 대회 출전 의지를 보이며 재활에 힘썼고, 지난해 대표팀 예비소집에도 참가했지만 재검 결과 출전이 어렵다는 결과를 받고 출전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김인식 감독과 코칭스태프는 28인 엔트리에서 정근우를 제외하고 50인 예비 엔트리에 있던 오재원(두산)을 선발했다. 오재원은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과 2015년 프리미어 12 대표팀에서 활약했다. 또한, 50인 예비 엔트리에 박민우(NC)를 추가 선발했다.

◇2017 WBC 28명 엔트리 명단

▲투수 : 임창용·양현종(이상 KIA) 이현승·장원준(두산) 유규민·심장민(이상 삼성) 차우찬·임정우(이상 LG) 장시환(kt) 원종현(NC) 박희수(SK) 이대은(경찰청) 오승환(세인트루이스) ▲포수 : 양의지(두산) 김태군(NC) ▲내야수 : 오재원·허경민·김재호(이상 두산) 서건재·김하성(이상 넥센) 김태군(한화) 이대호(롯데) 박서민(NC) ▲외야수 : 최형우(KIA) 민병헌·박건우(이상 두산) 이용규(한화) 손아섭(롯데) /연합뉴스

오타니, 없다니...

부상에 WBC 日 투수 포기



일본의 야구천재 오타니 쇼헤이(22·닛폰햄 파이터스)가 오는 3월 개막하는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에서 투구

하는 모습을 볼 수 없게 됐다.

일본의 스포츠 신문 ‘스포니치 야베스’는 1일(한국시간) ‘사우라이 재팬’의 일원으로 3월 WBC에서 투타 활약이 기대되는 오타니가 투수로서의 출전을 포기했다고 보도했다.

현재 미국 애리조나주 피오리아 닛폰햄 스프링캠프에 참가 중인 오타니는 구리아마 히데키 감독의 끝에 이러한 뜻을 WBC 일본 대표팀에 전달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오타니가 WBC 투수 출전을 포기한 배경은 발목 부상 때문으로 알려졌다. 오타니는 지난해 일본시리즈 2중 발목을 다쳤다. 이후 11월 대표팀 평가전에서 발목 부상이 재발했다. 겨울 훈련 때 이 부위 회복에 온 힘을 쏟았는데, 여전히 통증을 호소하고 있다.

구리아마 감독은 “때우 유감이다. 작년 일본시리즈에서 다친 발목이 여전히 좋지 않다. 투수로서 WBC에서 뛰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대표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오타니는 투수로서 10승, 타자로서 22홈런을 기록하며 소속팀의 리그 우승과 일본시리즈 우승을 이끌었다.

오타니가 타자로서 WBC에 출장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 하지만 그마저도 무리라고 판단되면 아예 WBC 출전 자체를 접을 가능성도 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연합뉴스

KIA 챔피언십 많이 찾아주세요

입장료 동결...내야 중앙 K9존 성인 1만4천원 등

KIA 타이거즈가 2017시즌 홈경기 입장요금을 동결했다.

KIA는 1일 “많은 팬이 경기장을 찾을 수 있도록 요금을 동결했다”며 올 시즌 광주-기아 챔피언십필드에서 열리는 홈경기 입장요금을 발표했다.

일반 관람석은 지난해와 같이 K9존, K7존, K5존, K3존, 외야석으로 구분해 판매한다.

내야 중앙 지정석인 K9존은 성인 1만4000원, 중고생 및 군경 1만1000원, 어린이 7000원이다. 1~3루 내야 하단석인 K7존은 성인 1만1000원, 중고생 8000원, 어린이 5000원이다. K5존은 성인 1만원, 중고생 7000원, 어린이 4000원이다. 내야 상단석인 K3존은 성인 8000원, 중고생 5000원, 어린이 3000원에 판매한다. 외야석은 각각 8000원, 5000원, 2000원에 입장할 수 있다. 휴일에는 1000원씩 인상된다.

메이저리그식 프리미엄 의자가 설치된 챔피언십석은 4만원(휴일 5만원), 중앙테이블 2인석은 7만원(휴일 8만원)이다. 중앙테이블 3인석은 10만 5000원(휴일 12만원), 1~3루 베이스 옆의 서프라이즈석은 2만원(휴일 2만 2000원), 파티석(4인석)과 스카이 피

크닉석(4인석)은 각각 8만원(휴일 9만원)과 7만원(휴일 8만원)이다.

1~3루 가장자리에 위치한 타이거즈 가족석의 4인석과 6인석 가격은 각각 7만원(휴일 8만원)과 8만원(휴일 9만원), 외야 테이블석인 에코다이나믹스 가족석(6인석)은 7만원(휴일 8만원)이다.

경로 우대자 및 1~3급 장애인, 미취학 아동 등은 매진 시를 제외하고 외야에 무료 입장할 수 있다. 또 1~3급 장애인인 K9석에 위치한 장애인 지정석을 71% 할인된 4000원(휴일 5000원)에 이용할 수 있다. 국가유공자와 4~6급 장애인, 경로 우대자는 테이블석과 특별석을 제외한 좌석의 입장료를 50% 할인받는다. 문화누리카드는 일반석에 한해 40% 할인이 적용된다. 한페이 카드로 결제하거나 자전거를 타고 오면 1000원을 할인해 준다.

한편 4월 4일 진행되는 광주 개막전(SK전)의 입장권은 3월 28일 오전 11시부터 예매할 수 있다. 예매는 인터넷 티켓링크(http://sports.ticketlink.co.kr)나 전화(1588-7890)를 이용하면 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뒀다! 왕정훈

스타들과 동반 플레이

유럽투어 두바이 데저트 클래식 개막

에스트우드·카이머 등과 같은 조 편성

왕정훈(22)이 유럽프로골프 투어 두바이 데저트 클래식(총상금 265만 달러)에서 세계 정상급 선수들과 동반 플레이를 펼친다.

2일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개막하는 두바이 데저트 클래식 조직위원회가 1일 발표한 이번 대회 1, 2라운드 조 편성 결과 왕정훈은 리 웨스트우드(잉글랜드), 마틴 카이머(독일)와 1, 2라운드를 함께 치른다.

웨스트우드는 2010년, 카이머는 2011년에 세계 랭킹 1위까지 올랐던 톱 랭커들로 대회 조직위원회가 왕정훈의 ‘이름값’을 그만큼 인정한 셈이다.

왕정훈은 지난 29일 끝난 유럽프로골프 투어 코머셜뱅크 카타르 마스터스에서 우승, 이번 대회에서 2주 연속 정상에 도전한다. 지난해 유럽투어 신인상 수상자인 왕정훈은 카타르 대회 우승으로 유럽투어 상금 2위에 올라 있다.

왕정훈은 2일 오후 5시 15분(이하 한국시간) 1번 홀을 출발하고, 우즈는 오후 1시 15분에 10번 홀에서 1라운드 경기를 시작한다.

/연합뉴스